

# 뭔 말인지 알겠다

글고경희(시인, 한글문화연대 대표)

우물 안에서만 살던 개구리가 우연히 우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. 큰 뜻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가져서가 아니었다. 한 여름에 홍수를 만나 엉겁결에 밀려 나오게 된 것이다. 우물 밖으로 내던져진 삶은 외롭고도 험난했다. 우여곡절 끝에 그 개구리는 느릿하고 훌륭하게 자라 성공한 개구리가 되었다.

어느 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상에 잠겼던 장년의 개구리는 문득, 제가 살던 우물 안이 그리워졌다. 그래서 그는 우물 안 마을을 찾아갔다. 마을은 변함이 없었다. 우물 안의 개구리들은 저 바깥세상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었다. 여전히 옹기종기 모여 아옹다옹 헐뜯으며 티격태격 살아가고 있었다. 때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사생결단을 하듯 아귀다툼을 해가면서.

그 모습을 보는 성공한 개구리는 너무나 안타까웠다. 성공한 개구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들에게 저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. 세상이 얼마나 넓으며, 또 할 일은 얼마나 많은지 말해주고 싶었다. 그리고 그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 서로 치고 받으며 쟁취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허찮은 것인지, 그들이 그 힘과 열정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저 큰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도 알려주고 싶었다.

그는 우물 밖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소상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.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인간힘을 썼다. 그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단 어들을 총동원하여 우물 밖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 했다. 크고 재빠른 동물들이 수없이 많이 살고 있는 울창한 숲과 나무들, 그 숲이 숲을 이룬 높고 큰 산이며 또 그런

산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저 밖의 세상에 대해서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열심히 설명을 했다. 성공한 개구리를 둘러싸고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우물 안의 개구리들은 감동해서 고개를 깊이 고덕였다. 그리고 그 중에 똑똑하다는 지도자 개구리 한 마리가 성공한 개구리에게 이렇게 물었다. “그래 그으래 알겠따. 네가 말한 그 산이라는 게 그렇게 높고 크구나. 그렇다면 어떠냐, 그 산들을 다 모으면 이 우~우물만큼 높겠느냐?” 성공한 개구리는 그만 할 말을 잃었다.

잠시 멍하고 있던 성공한 개구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우물 밖에서 본 또 다른 세상, 바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.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당도했던 바다, 그리고 눈길 닿는 데까지 아득히 펼쳐져 있던 수평선이며 그득그득 넘실대던 파도와 끝도 없이 푸르고 깊은 바닷물에 대해서 땀을 흘려가며 이야기했다.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우물 안의 원로 개구리들은 또 다시 고개를 주억거리며 말했다. “그래그래 네가 보았다는 그 바다라 는 것이 그렇게 크고 넓다니 정말 대단하다. 그래 그 바다라는 것이 정말 이 우물 전부보다 더 크더냐?” 우물 안 개구리들은 팔을 있는 대로 벌려 머리 위로 올렸다가 바닥까지 원을 그리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.

“우물만큼 크더냐?”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갇혀있는 소통의 벽이며 한계를 얘기하는 것 같다. 마치 부조리극처럼 답답하고 난해하기 때문이다. 원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모두들 혈안이 되어서 다투고 있다. 그나마 없으면 사람 사는 세상이 지루하지 않겠냐고 할런지 모르지만, 우물 안이든 우물 밖이든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지켜보는 ‘구름 낀 별뿔’도 쥘 일이 없는 우리 소시민들의 마음은 그저 염려스럽고 딱하기만 하다. ♪